

고(故) 박은용 화백의 대표작 '남도 가을 풍경' (2007)은 3m에 이르는 대작으로 다양한 가을 풍경과 사람들을 담은 '현대풍속화'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비운의 화가' 박은용의 따뜻한 작품 세계 만난다

광주시립미술관 2월 10일까지 10주기 특별전
진도 출생·1983년 적목법으로 이름 알려
6·25 등 겪으며 정신분열·우울증 투병
삶의 터전·인물·스케치·편지 등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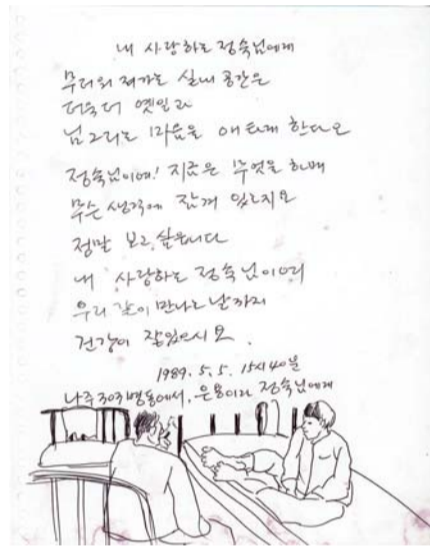


그는 그림으로 '생활일기'를 쓰듯 자신의 가족을 비롯해 삶의 터전에서 만난 사람들의 다양한 모습을 꾸준히, 생생하게 화폭에 담아냈다. 그의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골 장날 풍경 속으로 성큼 들어선 듯한 기분이 들기도 하고, 결속한 이야기와 오고갈 법한 선술집 의자에 앉아 있거나, 안방버스를 기다리는 정류장에 함께 서 있는 듯도 하다.

이번 전시는 '비운의 천재화가', '고독한 농부 화가' 등으로 불렸던 그의 10주기를 맞아 기획됐다. 언제나 비주류였던 탓에 회관에서 '제대로' 주목받지 못했던 그의 작품 세계와 삶을 돌아보는 대규모 기획전이다. 전시 제목은 '검은 고독, 푸른 영혼'으로 한국화 52점, 스케치 등 작품과 아카이브 자료를 만날 수 있다.

평생 가난을 벗어나지 못했고 삶을 옥죄었던 정신분열증과 우울증에 따른 고독과 불안, 절망과 늘 한몸이었던 그의 인생을 떠올리면 따뜻하고 평화로운 풍경과 가족, 이웃의 모습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게 그의 유일한 '안식처'였을지도 모르겠다. 광주시립미술관(관장 전승보)에서 열리고 있는 석현(石峴) 박은용(1944-2008) 전시에 다녀왔다. 그에 대한 평전을 준비중인 석주 박종석 작가가 동행했다. 박 작가는 그를 '영혼이 맑은 사람', '성자'라고 표현했다.

진도에서 태어난 박 화백은 조대부중에 입학, 미술관에서 오지호 화백을 만나고 '화가'의 꿈을 꾸다. 조대부와 미술관을 거쳐 서라벌예대 회화과에 입학한 그는 고향 진도에서 5년간 미술교사로 활동하다 1977년 광주로 진출, 전업작가의 길로 들어선다. 그가 두각을 나타낸 건 1983년 오랫동안 실험해 왔던 적목법(積墨法)을 화단에 알리면서부터다. 적목법은 먹 중점 시킴으로써 갈필의 흔적이 겹쳐지도록 고도의 세밀을 운용하는 화법이다.



나주정신병원 입원시 아내에게 보낸 편지.

'화가 박은용'의 삶에 비해 '인간 박은용'의 삶은 고단했다. 1950년, 7살의 나이에 인민재판에 끌려간 아버지와 가족들이 희생되는 모습을 지켜본 그는 평생 트라우마에 시달리며 불안정한 정신 세계에서 떠돌았다. 가난 역시 항상 그의 발목을 잡았고, 악덕 화랑 주인을 만나 작품 대금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간첩으로 몰려 고생하기도 했다. 정신병원에 드나들고 때론 대인관계도 힘들 정도로 고통받았던 그는 심장과 관련한 질병을 앓으면서 삶을 '스스로

마감하고 만다. 전시장에 들어서면 가장 먼저 만나는 건 무심한 듯 앞을 바라보고 있는 그의 '지화상'. 함께 걸린 건,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 어디로 가는가?'라 묻는 화가의 육성이다.

전시는 모두 3기로 구성돼 있다. 1기는 1970년대부터 1980년대 말까지의 작품이다. "아침 저녁으로 만나는 풀 한포기, 밭 가는 흙 한줌, 항상 현실에서 부딪히는 일상적인 사물들이 곧 스승이다"(1983)고 말한 그는 무등산 풍경과 그곳에서 만난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다. '새벽의 씨 뿌리는 여인', '정육동 풍경' 등은 적목법으로 화면을 뿔뿔이 채워 넣은 수천, 수만번 붓질의 '공력'이 느껴지는 작품들이다.

2기는 1990년대 초부터 1990년대 말까지의 작품이다. 대상을 단순화시킨 화풍으로 변화한 시점으로 파사로운 정취가 화면에 가득하며 특히 개인적 상황을 그린 수목화나 스케치들을 통해 그의 속내를 엿볼 수 있다. 3기는 2000년대 초부터 2008년까지로 한층 밝아진 색감이 눈에 띈다. 3m가 넘는 '남도의 가을날' (2007)은 아기엄은 엄마, 감 따는 아빠, 해학적으로 묘사된 소와 닭 등 추억을 소환하는 정겨운 풍경을 담은 작품으로 그가 '현대 풍속화가'로 불리는 이유를 잘 보여준다.

아카이브 자료 중 그가 나주 정신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그린 스케치와 편지 등을 읽다보면 가슴이 뭉클해진다. 담배 세가지와 교환한 스케치북과 '천사같은' 간호사에게 선물받은 고운 불펜으로 "난생 처음 어린 소년과 같이 가벼운 모습으로 많은 작업을 한" 결과물들이다. '내 사랑하는 정숙님(아내)에게'로 시작되는 편지에는 "지금 무엇을 하며 무슨 생각에 잠겨 있는지요. 정말 보고 싶습니다"라 적었다. 또 배동환·강연균·최상중 화백과 주고받은 편지와 사진 자료 등이 전시돼 있다.

'수박 사러' 등의 작품을 보며 그가 좀 더 오랫동안 붓을 잡았다면 그의 '애정 어린' 시선으로 잡아낸, 어쩌면 사려져 버릴 지도 모를 풍경과 사람들 이야기가 우리 곁에 좀 더 풍성하게 남아있지 않았을까하는 생각에 아쉬움이 느껴진다. 전시장에는 벼루, 붓, 화첩, 낙관 등 그의 유품들도 전시돼 있다. 그 중에 눈에 띄는 건 치열하고 힘들었던 그의 '마지막'을 오롯이 느끼게 해주는 듯한, 닳고 닳아버린 떡 한조각이다.

전시 개막식은 오는 20일 오후 4시 열리며 오후 2시30분부터는 장석원 미술평론가의 '박은용의 삶과 예술' 강연도 열린다. 전시는 2019년 2월 10일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44.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삭막한 도시 꽃 활짝 LH휴랑갤러리 정난주전

삭막한 도시에 화사한 꽃이 피었다. 바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한 숨 쉬어 가기를 권하는 힐링의 공간이다. 도심 속 정원인 셈이다.

정난주 작가 개인전이 오는 31일까지 한국토지주택공사 광주·전남 지역본부 1층 LH휴랑갤러리에서 열린다.

모두 25점의 작품을 만나는 이번 전시의 주제는 '아름다움의 시원-꽃을 그리다'. 이번 전시에서 선보이는 대표작 '시티 가든'은 그림 아랫부분 회색빛 건물들 위로 온갖 화려한 꽃들이 아름답게 피어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정 작가는 이번 4번째 개인전에서 의식의 자유로움에 따라 자연을 들여다 보고 보이지 않는 자연의 바람, 소리를 꽃에 담아 작가 자신만의 화려한 색채와 율동성 있는 형태감으로 표현해냈다. 작가의 프리즘을 통과해 재해석된 꽃과 집 등 다양한 작품들은 밝고 당당한 구도와 채색이 어우러져 감성적인 울림을 전한다.

조선대 대학원 서양학과를 졸업했으며 광주미술작가회, 광주전남유류작가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다. 문의 062-360-3100. /김미은 기자 mekim@



'시티 가든'

시립오페라단 출연자 공모

광주시립오페라단(예술감독 정갑근)이 내년 1월14-18일 시립오페라단 정기·수시공연 출연자를 공개모집한다. 다음 달 23일 광주문화예술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오디션에서는 정기 공연 작품인 정율성의 '망부윤', 비제 '카르멘', 베르디 '운명의 힘'과 창작 오페라 중 지광 오페라 배역의 아리아 1곡과 자유곡 1곡 총 2곡을 선보이면 된다. 1차 서류심사 통과자는 1월21일, 2차 오디션 합격자는 같은 달 25일에 발표한다. 문의 062-412-2507.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ACC와 함께하는 우리茶 이야기

20일까지 이치헌 도예전

'ACC와 함께하는 우리茶 이야기'가 전시가 20일까지 전당 라이브러리파크 북라운지에서 열린다. 한국차문화화디자인연구소 ACC가 함

께 마련한 이번 행사는 사계절에 맞춰 어울리는 차와 국내 최고 도예가들이 만든 다기 작품을 함께 만나는 기획이다.

겨울편의 작가는 도예가 이치헌으로 다양한 문양의 다기를 선보인다. 서남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를 거쳐 조선대 산업공예

과 도예 전공 석사, 전남대 문화대학 인문학 박사 과정, 미술학과 미학 박사 과정을 수료한 이 작가는 '자연 속에 나를 담다' 전 등 서울과 광주 등에서 7차례 개인전을 열었다. 무등미술대전·광주시립미술대전 심사위원을 역임했으며 광주전남도예가회, 사)무등산 분청사기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현재 휴이이야기 도예공방을 운영 중이다.

현장에서 다양한 차를 무료로 시음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행사 기간 중 텀블러나 컵을 가져오면 우리 차를 무료로 담아주는 '우리차와 함께하는 ACC 환경 캠페인'도 벌인다. 21-31일까지는 '아시아 차와 우리 차 이야기' 전시가 열릴 예정이다.

문의 010-6331-32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pproved Partner Hearing Instrument SIEMENS

새로운 소리를 듣다

130년 전통 독일 지멘스 보청기

- 첫째. 한 달 착용후 불만족시 100% 환불
- 둘째. 보청기정부지원금 131만원 신청
- 셋째. 4개지점 어디서든 A/S 및 소리조절
- 넷째. 65세 이상 어르신 최대 50% 할인

상무지구: 376-1010 / 북구말바우: 268-9001 / 광산·수완: 954-1030 / 전대의대: 430-8801

2018-2019 신양파크호텔 겨울축제를

기간: 2018.12.1(토) ▶ 2019.2.28(목)

- 축제 1. 객실 겨울 패키지: 객실 리모델링 기념 60% DC
- 축제 2. 1층 레스토랑 "티파니" 감사축제: 커피 3,000원, 돈까스 코스 18,000원, 안심스테이크 코스 50,000원
- 축제 3. 신양파크호텔 사우나 이용권 증정: 1층 티파니 이용고객 ₩15,000당 사우나 이용권 1매 증정 (연회장 및 조식 이용 고객 제외)

신양파크호텔 예약문의 ☎ (062)228-8000, 221-4101